

전기차시장 '캐즘' 장기화 조짐 K-배터리, 생산·투자 속도조절

배터리3사, 시장상황 적극 대처
LG엔솔 에리조나 공장 건설 중단
SK온 켄터키 2공장 가동 연기
삼성SDI 연내 46파이 양산 준비

국내 배터리 사들이 전기차 수요의 일시적인 정체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업계는 투자 속도 조절에 본격 나섰다.

1일 업계에 따르면 배터리 3사(LG에너지솔루션·삼성SDI·SK온)가 시장 상황에 유연하게 대처하기 위해 예정된 투자의 속도를 조절하는데 집중하고 있다. 전기차 시장의 캐즘(수요 정체) 현상이 장기화 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해지면서 기존 투자 계획을 축소하는 등 대응 전략을 모색하는 분위기다.

전기차 수요는 작년 하반기부터 기세가 꺾이기 시작했다. 세계 경제 불확실성이 진정되지 않는 가운데 각국 정부가 전기차 보급 정책을 축소하는 움직임이 보여 전기차 시장은 더욱 침체되고 있다.

중국 자동차 기업들의 저가 공세도 더해지면서 전기차 사업 수익성이 악화됐다. 이러한 상황에 직면하자 자동

차 기업들도 전기차 판매 목표를 줄이기 시작했다. 그 결과 배터리 기업들도 생산 목표치를 낮출 수밖에 없는 현실에 처했다.

LG에너지솔루션은 미국 애리조나 주의 에너지 저장장치, ESS 리튬인산철 배터리 전용 생산 공장 건설을 착공한 지 두 달 만에 중단했다. 공장 재개 시점은 아직 미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1분기 실적발표 컨퍼런스 콜에서 LG에너지솔루션 측은 "당분간 대외 환경과 전방 시장 수요 개선에 대한 가시성이 크지 않은 것 같다"며 "투자 우선순위를 철저히 따져보고, 능동적으로 투자 규모와 집행 속도를 조정해 다소 설비투자(CAPEX) 규모를 낮추고자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번 건설 중단도 이러한 투자 속도 조절 방침을 실현한 것으로 분석된다.

SK온과 완성차 기업 포드의 합작법인 '블루오벌SK'는 미국 켄터키 2공장의 양산 시점을 늦추기로 결정했다. 정확한 재양산 날짜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지만, 당초 계획했던 공장 가동 시점은 2025년 연말이다. 공장 가동 시점이 미뤄지게 된 요인으로는 포드의 전기차 사업 부분에 대규모 손실이 이어진 점이 꼽힌다.

다만 삼성SDI는 다른 배터리 업체와 엇갈린 행보를 띄고 있다. 삼성SDI의 설비투자는 지난 2021년 2조1802억원에서 2022년 2조5181억원, 2023년 4조3447억원으로 지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해당 전략은 LG에너지솔루션과 SK온이 전기차 캐즘 현상으로 투자 집행 속도를 조정한다고 밝힌 것과는 다른 모습이다.

삼성SDI 측은 1분기 실적발표 컨퍼런스콜에서 "올해 투자는 자동차 전지 중심이 이뤄질 것"이라며 "자동차 전지 산업 특성에 맞게 장기적인 관점에서 시장과 고객의 수요에 근거해서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삼성SDI는 46파이와 전고체 배터리를 통한 시장 대응에도 적극 나설 전망이다. 이미 지난해 상반기 46파이 파일럿 라인을 구축한 후 고객사들에게 샘플을 공급하고 있다. 본격적인 양산 준비는 올해 중으로 마무리될 것으로 예측된다.

업계 관계자는 "배터리사가 투자 속도 조절에 나선 것은 전기차 캐즘에 맞춰 대응하려는 전략"이라며 "원가를 절감하고, 생산 라인 효율을 높이는 데 집중하면서 본원적인 경쟁력을 키울 것"이라고 말했다.

/차현정 기자 hyeon@metroseoul.co.kr



(왼쪽부터) 효성 조현준 회장과 팜 민 쩐 베트남 총리가 지난 1일 미래사업 협력방안에 대해 함께 논의했다. /효성

조현준 효성회장, 팜 민 쩐 베트남 총리 면담

"베트남, 탄소섬유 거점 조성"

조현상 HS효성부회장 동석
핀테크 등 미래사업 협력 논의

효성이 신규 투자를 통해 베트남을 글로벌 탄소섬유 생산 거점으로 만드는 데 집중한다.

2일 효성에 따르면 조현준 효성 회장이 조현상 HS효성 부회장과 함께 방한 중인 팜 민 쩐(Pham Minh Chinh) 총리를 서울 롯데호텔에서 만나 미래 사업에 대한 상호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면담에서는 바이오 BDO(부탄다이올), 탄소섬유 등 베트남에 투자를 진행중인 사업과 물류센터 및 데이터센터, 신재생 에너지를 비롯한 전력망과 핀테크 등 미래 사업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의 협력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회장은 "100년 효성의 미래를 베트남에서 열겠다"고 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 기존 주력제품 외에도 Bio BDO, IT, 전력 기기, 첨단소재, ATM, 데이터센터 등 미래사업 역시 베트남이

중심이 될 것이라는 생각으로 베트남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조 부회장은 "신규 투자를 통해 베트남을 향후 탄소섬유 글로벌 생산 거점으로 확대할 계획"이라며 "적극적인 지원을 바란다"고 밝혔다.

팜 민 쩐 베트남 총리는 효성의 지속적인 베트남 투자 노력에 대해 감사를 표하며 베트남 정부 관계자들에게 효성의 베트남 내 비즈니스에 대한 애로 사항이 없는지를 살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베트남은 하이테크 산업을 우대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효성의 미래사업 투자가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살피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효성과 HS효성은 이날 포럼을 통해 베트남 바리야붕따우성과는 바이오 BDO와 탄소섬유 투자 및 지원 확대에 대한 MOU를, 베트남 5대 기업 중 하나인 소비코(Sovico) 그룹과는 데이터센터, 핀테크, 신재생에너지, 금융 등 사업협력을 위한 MOU를 체결했다.

/차현정 기자

한화오션 '명품 함정3형제', 환태평양훈련 출격

〈울곡이이함·총무공이순신함·이범석함〉

"K-함정 우수성 증명할 것"

한화오션의 '명품 함정3형제'가 다국적 해상훈련 '2024 환태평양훈련(림팩)'에서 우리 해군의 주력 함정으로 활약한다.

2일 한화오션에 따르면 지난달 27일부터 8월2일까지 미국 하와이 일대에서 열리는 림팩 훈련에 대한민국 해군의 환태평양훈련전대 소속으로 참가하는 함정은 이지스함인 KDX-III '울곡이이함', KDX-II '총무공이순신함', 1800톤급 장보고-II 잠수함인 '이범석함' 등이다. 이 3척은 모두 한화오션이 건조·인도했다.

이 함정들은 이번 림팩 훈련에서 함대공미사일 SM-2 발사 등과 같은 대



총무공이순신함

공전 외에 대함전, 대잠전, 자유공방전 등 다양한 훈련을 진행한다. 올해 림팩에는 한국과 미국, 일본, 캐나다, 호주 등 29개국의 수상함 40척, 잠수함 3척, 항공기 150여 대 및 병력 2만5000여 명이 참가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화오션은 세계 각국 해군들의 '친선의 장'인 동시에 실력을 겨루는 '격전의 장'인 림팩에서 K-함정의 우수성이

다시 한번 증명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림팩은 태평양 연안 국가 간의 해상 교통로 보호 및 위협에 대한 공동 대처 능력, 연합작전 상호 운용 능력을 증진하기 위해 미국 해군 주관으로 진행되는 다국적 연합훈련이다. 1971년부터 시작돼 2년마다 진행되며, 올해로 29번째 훈련이다. 한국은 1988년 '옵서버' 자격으로 훈련을 참관했고, 1990년 첫 훈련 참가 이후 올해로 18번째 참가다.

한화오션은 이번 림팩에 참가한 '함정 3형제'가 보여줄 뛰어난 역량이 해외 함정 수출은 물론 미국 함정MRO(유지·보수·정비) 사업 추진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양성운 기자 ysw@

LS전선, 美 서부 지역에 해저케이블 공급

LS파워그리드 캘리포니아사 계약

LS전선이 미국 서부 지역에 처음으로 해저케이블을 공급한다.

LS전선이 미국 송전망 운영사 LS파워그리드 캘리포니아(LS Power Grid California)사와 1000억원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다고 2일 밝혔다.

이 계약을 통해 LS전선은 미국 시장에서 입지를 더욱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케이블은 캘리포니아주(이하 CA

주) 북부 세크라멘토강에 설치되어 오리건주 등 서북부에서 CA주로 전력을 송전하는 데 사용된다. 서부지역 전력망 안정화를 위한 사업의 일환이다.

CA주는 2035년까지 약 61억달러를 투자하여 26개의 신규 송전망과 85GW(기가와트) 이상의 재생에너지를 구축할 계획이다.

LS전선 관계자는 "CA주의 대규모 재생에너지 송전망 구축 계획에 맞춰 고객사와 협력을 강화해 시장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미국 해저케이블 시장은 노후 케이블의 교체, 신재생에너지 개발, AI와 전기차에 따른 전력 수요 증가 등으로 인해 지속적인 성장이 예상된다.

LS전선은 최근 자회사 LS그린링크, LS에코에너지를 통해 미국과 영국, 베트남에 생산 현지화를 추진하는 등 글로벌 해저 사업을 확대하고 있다.

LS Power는 1990년 미국 뉴욕에서 설립된 에너지 인프라 개발 및 투자 회사로, 북미 전역에서 에너지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다. /차현정 기자



유튜브 영상 제공
YouTube

LG화학, '2023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

신학철 부회장 "지속가능 생태계 선도"

LG화학이 지속가능한 산업 생태계를 선도해 나간다.

LG화학은 파트너십을 통한 넷제로 실현 노력을 담은 '2023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간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보고서는 파트너십을 통해 넷제로를 실현하고, 지속가능한 성장 기회를 발굴하기 위한 LG화학의 지속가능 전략과 실행들을 소개했다.

LG화학은 2026년까지 사업에서 직

·간접적으로 배출되는 탄소뿐만 아니라 협력사를 포함한 사업 전체의 밸류체인에서 발생하는 배출량까지 산출해 지속가능한 산업 생태계를 만들어 나간다는 계획이다.

신학철 LG화학 부회장은 "LG화학은 글로벌 선도 과학기업으로 더욱 개방적이고 혁신적으로 지속가능경영을 추진하고, 다양한 파트너사와 공동의 노력을 통해 지속가능한 산업 생태계를 선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차현정 기자

기아 "인천공항에서 EV9 탑승해보세요"

체험형 전시공간 운영

기아가 소비자들과 소통 확대를 위해 인천공항에 체험형 전시공간을 운영한다.

기아는 전 세계로 향하는 관문인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3층 출국장 H구역 인근에 위치한 전시부스를 체험형 콘텐츠로 새 단장하고 운영에 나섰다. 2일 밝혔다.

현재 전시부스에는 기아의 E-GMP



기아가 인천공항에 설치한 체험형 전시부스.

기반 플래그십 SUV EV9이 전시돼 있으며, 향후 신차 출시에 맞춰 전시 차량을 지속 교체한다. /양성운 기자